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10. 25.(화) 12:00	배포 일시	2022. 10. 25.(화) 08:30
담당 부서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책임자	과 장 김경희 (042-481-2264)
		담당자	사무관 황수린 (042-481-2565)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일 러 두 기

- 이 자료는 비정규직 규모와 근로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 노사정위원회 합의문 중 관련내용 참조(부록3)

- 연령, 교육정도, 산업, 직업 등 기초적인 자료는 2022년 8월 고용동향('22. 9. 16.)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 '19년 추가로 포착된 기간제 근로자 규모에 영향을 받는 한시적, 비정규직, 정규직 항목은 '18년 이전까지와 '19년 이후로 구분하여 전년대비 증감 비교가 가능합니다.

※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관련 설명 참조('19.10.31.)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규모와 구성비는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별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그 합계와 불일치합니다.

※ 유형간 중복을 제거한 비정규직 규모 참조(참고2)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인구추계 보정, 한국표준산업·직업분류 개정 등을 반영하여 원계열을 소급보정하였습니다.

- 2018년부터 등록센서스에 기반한 인구추계 결과에 따라 작성하고 있으며, 2004~2017년간 자료를 소급보정하였습니다.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13~2017년간 자료를 소급보정하였고, 2018년부터 신분류에 따라 공표하고 있습니다.

- 통계표에 수록된 각 자료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통계표 중 「-」 표시는 해당숫자 없음, 조사된 표본 없음, 「0」은 단위 미만을 나타냅니다.

□ 통계자료 제공 안내

- 동 자료는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에서도 이용가능하며, 마이크로데이터는 MDIS(<http://mdis.kostat.go.kr>)를 통해 2022년 11월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목 차

□ 2022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요약)	1
1. 근로형태별 근로자 규모	
가.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5
나. 한시적 근로자	6
다. 시간제 근로자	7
라. 비전형 근로자	9
2. 비정규직 근로자 특성	
가. 성별 특성	10
나. 연령계층별 특성	10
다. 산업별 특성	11
라. 직업별 특성	12
마. 교육정도별 특성	12
3. 항목별 분석	
가. 일자리 형태 선택 동기	13
나. 평균 근속기간	14
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	14
라.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	15
마. 계약서 서면작성 비율	15
바. 사회보험 가입률	16
사. 근로복지 수혜율	17
아. 교육·훈련 경험 비율	17
자. 노동조합 가입 비율	18
차. 적용임금 형태	19
4. 임금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19
□ 참고	
1. OECD Temporary Workers	21
2. 유형간 중복을 제거한 비정규직 규모	22
3. 종사상지위별 정규직·비정규직 규모	23
□ 통계표	24
□ 부 록	
1.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개요	31
2. 한국 표준 산업·직업분류	33
3. 노사정위원회 합의문 중 관련 내용(2002. 7. 22)	35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감



비정규직 규모·비중

• 815만 6천명 37.5%

전년동월대비

0.9%p ↓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임금근로자 100.0%



정규직 62.5%

1,356만 8천명
(64만 1천명 ↑)

비정규직* 37.5%

815만 6천명
(9만명 ↑)

한시직 24.6%



534만 8천명
(17만 7천명 ↑)

시간제 17.0%



368만 7천명
(17만 5천명 ↑)

비전형 9.8%



213만 1천명
(14만 7천명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규모와 구성비는 근로형태(한시직, 시간제, 비전형)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중복인원을 제외한 순계로 유형별 규모 및 구성비의 합계와 불일치 함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



▶ 주당평균 취업시간

29.6시간 (0.6시간 ↓)



▶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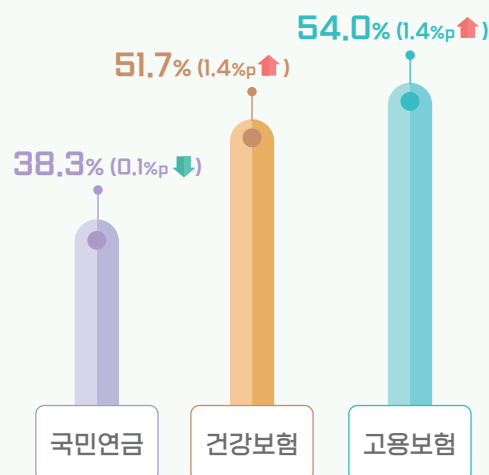
188만 1천원 (11만 2천원 ↑)



▶ 현 직장의 평균 근속기간

2년 6개월 (1개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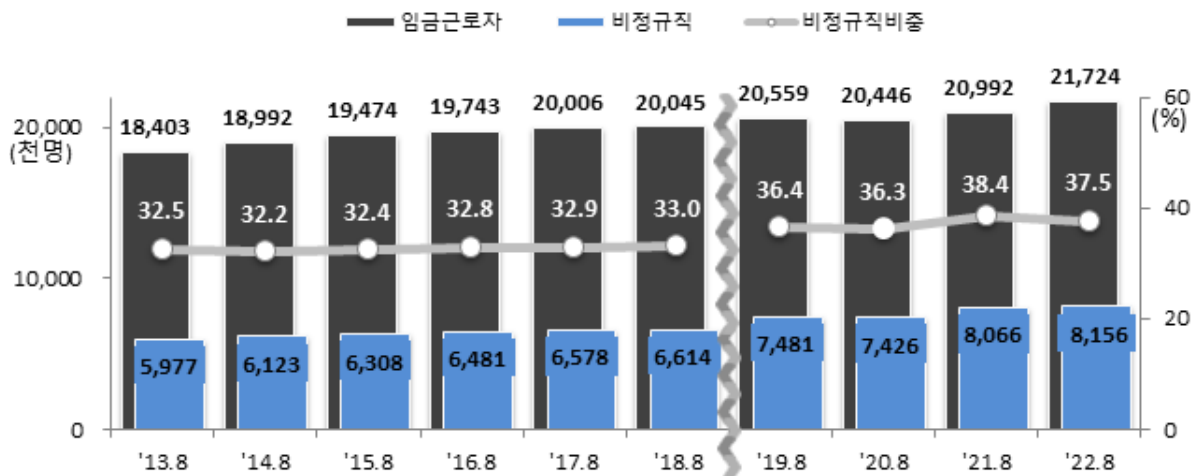
사회보험 가입률



2022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요약)

- 비정규직 근로자는 815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명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37.5%로 0.9%p 하락
- 정규직 근로자는 1,356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4만 1천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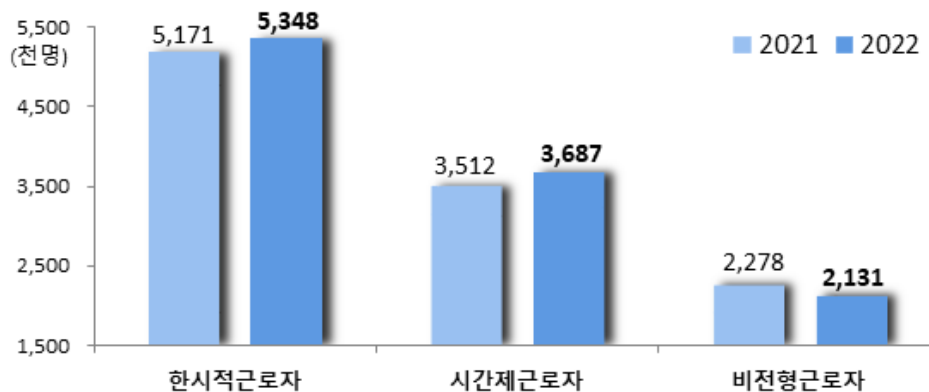
<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중 >



※ 추가 포착된 기간제 영향으로 비정규직 규모는 2018년 이전과 2019년 이후로 구분하여 증감 비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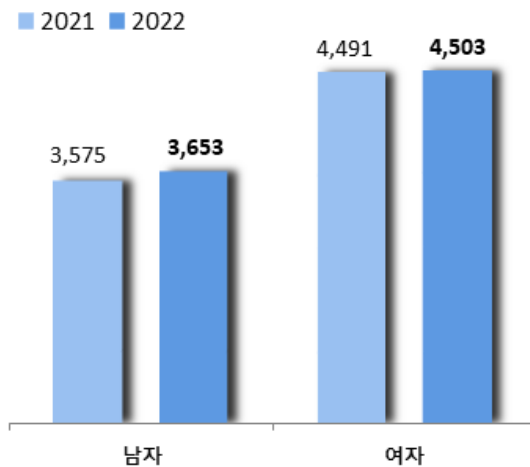
- 근로형태별로 보면 한시적 근로자(534만 8천명)는 17만 7천명, 시간제 근로자(368만 7천명)는 17만 5천명 각각 증가하였고, 비전형 근로자(213만 1천명)는 14만 7천명 감소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형태별 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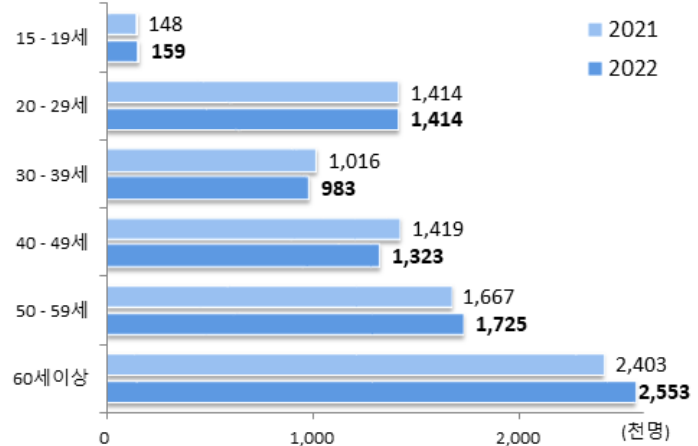


- 성별로는 남자가 365만 3천명으로 7만 8천명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450만 3천명으로 1만 3천명 증가
- 연령계층별로는 60세이상(15만 1천명), 50대(5만 8천명) 등에서 증가하였고, 40대(-9만 6천명), 30대(-3만 3천명)는 감소

< 비정규직 근로자 성별 규모(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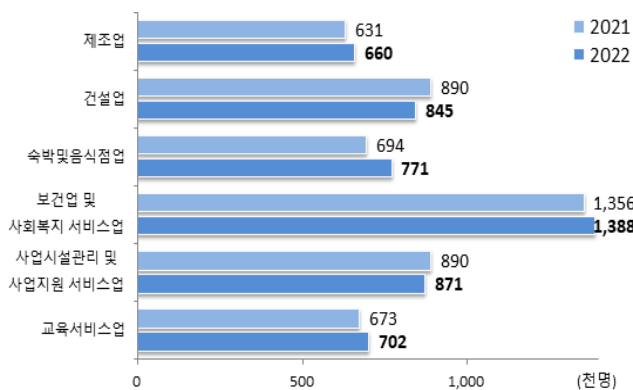


< 비정규직 근로자 연령계층별 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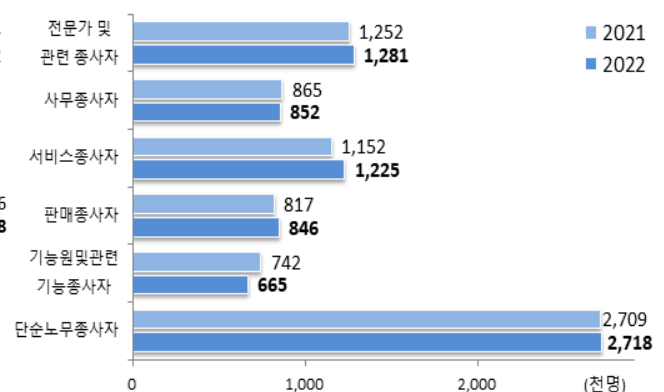


- 산업별로는 숙박및음식점업(7만 7천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3만 1천명), 제조업(2만 9천명) 등에서 증가하고,
 - 건설업(-4만 5천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1만 8천명), 농림어업(-1만 7천명) 등에서는 감소
- 직업별로는 서비스종사자(7만 3천명),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3만명) 등에서 증가하고,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7만 7천명) 등에서는 감소

< 비정규직 근로자 산업별 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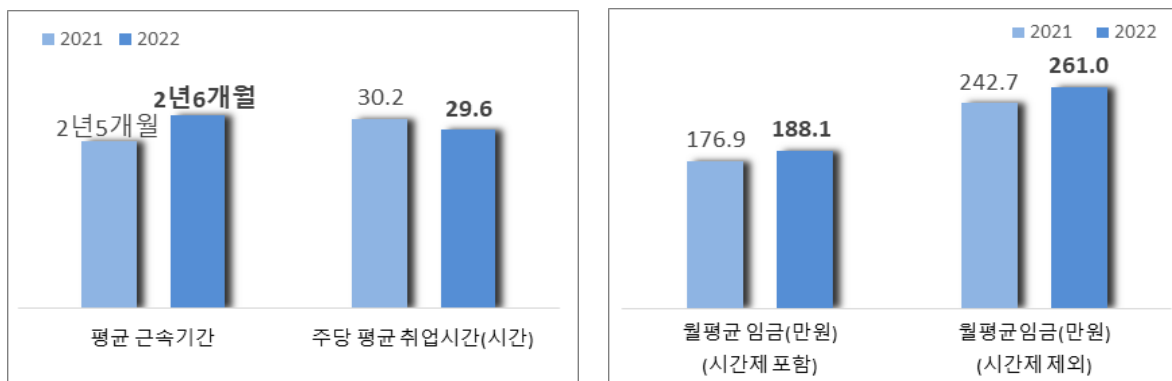
<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별 규모 >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전년동월과 비교해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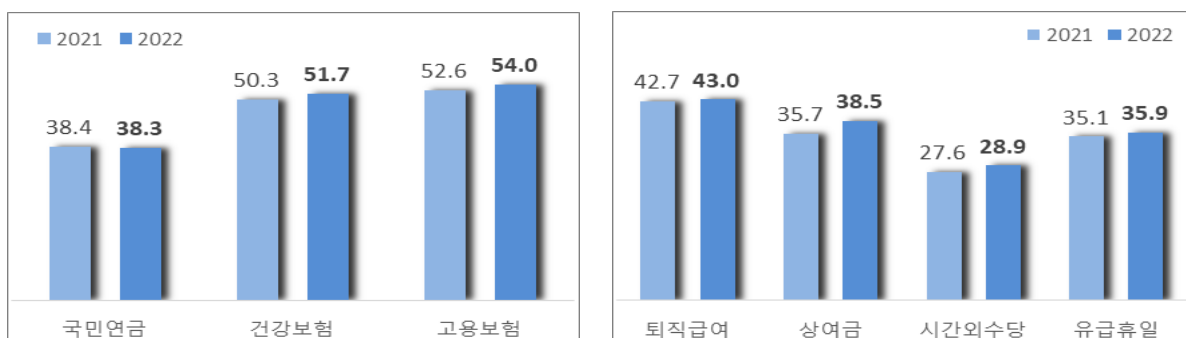
- 근로형태를 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비율은 62.8%로 2.9%p 상승
 - 한시적 근로자는 1.8%p, 시간제 근로자는 2.0%p, 비전형 근로자는 3.0%p 각각 상승
- 현 직장(일)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 6개월(30개월)로 1개월 증가
- 주당 평균취업시간은 29.6시간으로 0.6시간 감소
-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은 188만 1천원으로 11만 2천원 증가
 -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하면 261만원으로 18만 3천원 증가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 여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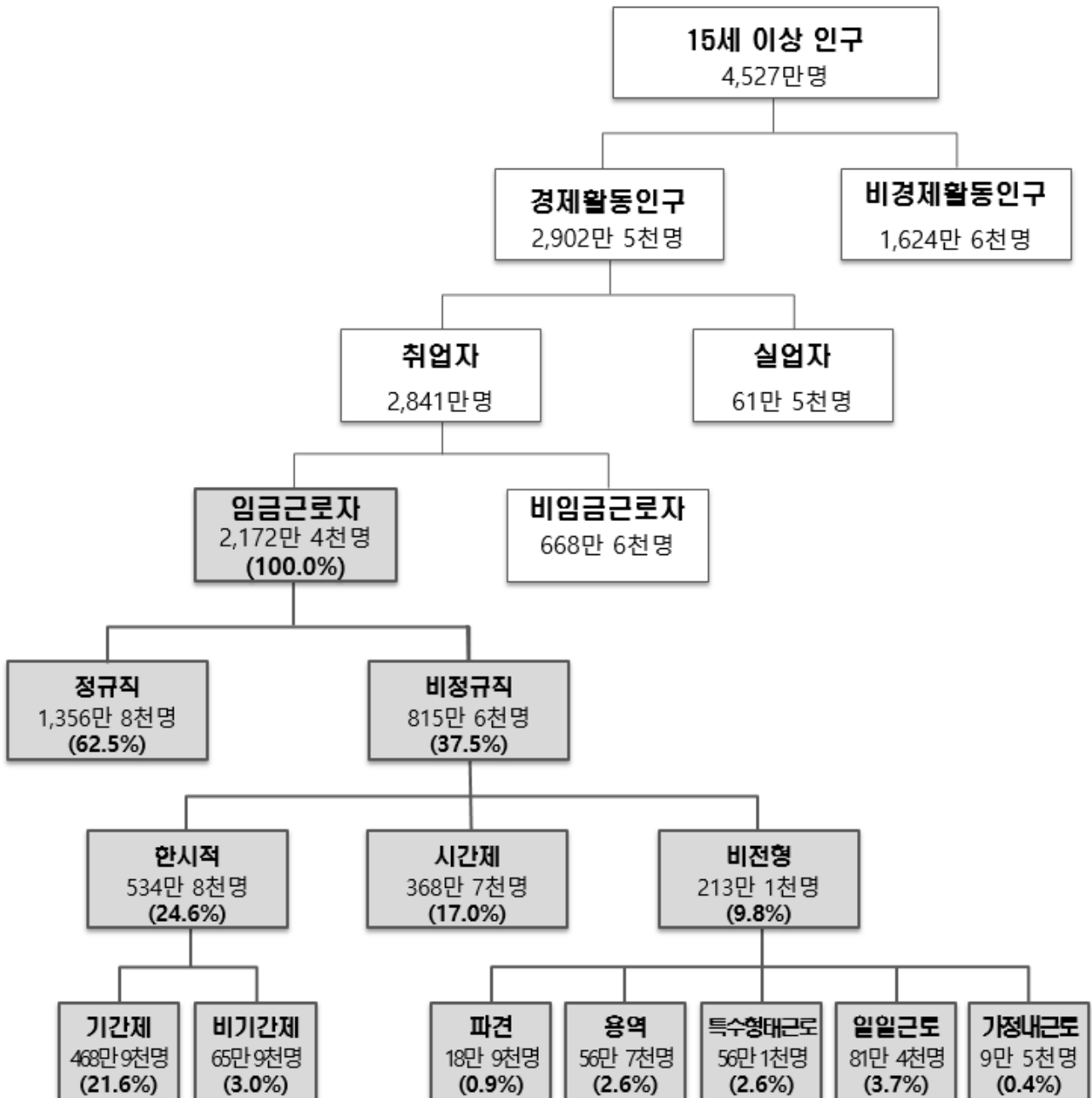


-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54.0%) 1.4%p, 건강보험(51.7%) 1.4%p 상승한 반면, 국민연금(38.3%)은 0.1%p 하락
 - 비전형 근로자는 고용보험(5.7%p), 건강보험(2.0%p) 가입률이 상승, 한시적 근로자는 국민연금(-2.0%p), 고용보험(-1.5%p) 가입률이 하락
- 근로복지 수혜율은 퇴직급여(43.0%) 0.3%p, 상여금(38.5%) 2.8%p, 시간외수당(28.9%) 1.3%p, 유급휴일(35.9%) 0.8%p 각각 상승

<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및 근로복지 수혜율(%) >



< 근로형태별 근로자 구성(2022년 8월) >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규모는 비정규직 유형별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그 합계와 불일치함

2022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1. 근로형태별 근로자 규모

가.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 2022년 8월 임금근로자는 2,172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3만 2천명 증가하였음
- 정규직 근로자는 1,356만 8천명(62.5%)으로 64만 1천명 증가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815만 6천명(37.5%)으로 9만명 증가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7.5%로 0.9%p 하락하였음

	2017. 8.	2018. 8.	2019. 8.	2020. 8.	2021. 8.	2022. 8.
○ 임금근로자 (천명)	20,006	20,045	20,559	20,446	20,992	21,724
- 정 규 직 (천명)	13,428	13,431	13,078	13,020	12,927	13,568
- 비정규직 (천명)	6,578	6,614	7,481	7,426	8,066	8,156
·임금근로자 대비 (%)	(32.9)	(33.0)	(36.4)	(36.3)	(38.4)	(37.5)

※ 추가 포착된 기간제 영향으로 비정규직 규모는 2018년 이전과 2019년 이후로 구분하여 증감 비교 가능

<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1. 8.		2022. 8.		증감 (률)	
		구성비		구성비		
< 임금근로자 >	20,992	100.0	21,724	100.0	732	(3.5)
○ 정 규 직	12,927	61.6	13,568	62.5	641	(5.0)
○ 비정규직 ¹⁾	8,066	38.4	8,156	37.5	90	(1.1)
- 한 시 적	5,171	24.6	5,348	24.6	177	(3.4)
- 시 간 제	3,512	16.7	3,687	17.0	175	(5.0)
- 비 전 형	2,278	10.8	2,131	9.8	-147	(-6.4)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규모와 구성비는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의 중복 인원을 제외한 순계로 유형별 규모 및 구성비의 합계와 불일치함

나. 한시적 근로자

- 한시적 근로자는 534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 7천명 증가하였음
- 기간제 근로자는 468만 9천명으로 15만 2천명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57.5%로 1.2%p 상승하였음
- 비기간제 근로자는 65만 9천명으로 2만 5천명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중 비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8.1%로 0.2%p 상승하였음
- 한시적 근로자 중 남자는 236만 8천명으로 13만 4천명 증가하였고, 여자는 298만명으로 4만 3천명 증가하였음

< 한시적 근로자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1. 8.		2022. 8.		증감 (률)	
		구성비		구성비		
< 전체 비정규직 >	8,066	100.0	8,156	100.0	90	(1.1)
○ 한시적근로자	5,171	64.1	5,348	65.6	177	(3.4)
- 기 간 제 ¹⁾	4,537	56.3	4,689	57.5	152	(3.4)
- 비기간제 ²⁾	634	7.9	659	8.1	25	(3.9)
< 남자 비정규직 >	3,575	100.0	3,653	100.0	78	(2.2)
○ 한시적근로자	2,234	62.5	2,368	64.8	134	(6.0)
- 기 간 제 ¹⁾	1,964	54.9	2,105	57.6	141	(7.2)
- 비기간제 ²⁾	269	7.5	263	7.2	-6	(-2.4)
< 여자 비정규직 >	4,491	100.0	4,503	100.0	13	(0.3)
○ 한시적근로자	2,938	65.4	2,980	66.2	43	(1.5)
- 기 간 제 ¹⁾	2,573	57.3	2,585	57.4	12	(0.5)
- 비기간제 ²⁾	365	8.1	396	8.8	31	(8.6)

1) 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

2) 비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일의 완료, 이전 근무자 복귀, 계절근무 등)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다. 시간제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는 368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 5천명 증가하였음
-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45.2%로 1.7%p 상승하였음
- 남자는 112만 5천명으로 11만 5천명 증가하였고, 여자는 256만 2천명으로 6만 1천명 증가하였음

< 시간제 근로자¹⁾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1. 8.		2022. 8.		증감 (률)	
		구성비		구성비		
< 전체 비정규직 >	8,066	100.0	8,156	100.0	90	(1.1)
○ 시 간 제	3,512	43.5	3,687	45.2	175	(5.0)
< 남자 비정규직 >	3,575	100.0	3,653	100.0	78	(2.2)
○ 시 간 제	1,011	28.3	1,125	30.8	115	(11.3)
< 여자 비정규직 >	4,491	100.0	4,503	100.0	13	(0.3)
○ 시 간 제	2,502	55.7	2,562	56.9	61	(2.4)

1) 시간제 근로자 :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 시간제 근로자 중 고용안정성이 있는 근로자*는 54.5%로 전년동월대비 1.4%p 상승하였음

* 폐업,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시간제 근로자

	2017. 8.	2018. 8.	2019. 8.	2020. 8.	2021. 8.	2022. 8.
고용안정성(%)	60.0	58.7	56.4	52.5	53.1	54.5

- 시간제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을 성별로 보면, 여자가 2년 0개월로 남자(1년 7개월)에 비해 5개월 길게 나타났음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근속기간이 동일하였고, 여자는 2개월 증가하였음

< 시간제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 >

(단위: 전년동월대비)

	2017. 8.	2018. 8.	2019. 8.	2020. 8.	2021. 8.	2022. 8.	증감
전체	1년 9개월	1년 9개월	1년 9개월	1년 9개월	1년 9개월	1년 11개월	2개월
남자	1년 5개월	1년 6개월	1년 6개월	1년 4개월	1년 7개월	1년 7개월	0개월
여자	1년 10개월	1년 10개월	1년 10개월	1년 11개월	1년 10개월	2년 0개월	2개월

- 시간제 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을 성별로 보면, 남자가 19.6시간으로 여자(18.3시간)에 비해 1.3시간 길게 나타났음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5시간, 여자는 0.2시간 각각 증가하였음

< 시간제 근로자 주당 평균 취업시간 >

(단위: 시간, 전년동월대비)

	2017. 8.	2018. 8.	2019. 8.	2020. 8.	2021. 8.	2022. 8.	증감
전체	20.5	19.1	18.9	18.8	18.4	18.7	0.3
남자	21.5	20.0	20.0	19.3	19.1	19.6	0.5
여자	20.1	18.7	18.5	18.6	18.1	18.3	0.2

- 시간제 근로자의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임금을 성별로 보면, 남자가 112만 2천원으로 여자(94만 4천원)에 비해 17만 8천원 많게 나타났음

- 전년동기대비 남자는 14만 2천원, 여자는 5만 4천원 각각 증가하였음

< 시간제 근로자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임금 >

(단위: 만원, 전년동기대비)

	2017. 8.	2018. 8.	2019. 8.	2020. 8.	2021. 8.	2022. 8.	증감
전체	80.3	86.7	92.7	90.3	91.6	99.9	8.3
남자	85.4	93.6	100.4	97.0	98.0	112.2	14.2
여자	78.2	84.1	89.9	87.7	89.0	94.4	5.4

라. 비전형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는 213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만 7천명 감소하였음
- 비정규직 근로자 중 비전형근로자 비중은 26.1%로 2.1%p 하락하였음
- 비전형근로자 중 일일근로는 14만 1천명 감소하였고, 가정내근로는 1만 6천명 증가하였음
- 남자는 120만 9천명으로 13만 4천명 감소하였고, 여자는 92만 2천명으로 1만 4천명 감소하였음

< 비전형 근로자¹⁾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1. 8.		2022. 8.		증감 (률)	
		구성비		구성비		
< 전체 비정규직 >	8,066	100.0	8,156	100.0	90	(1.1)
○ 비전형근로자	2,278	28.2	2,131	26.1	-147	(-6.4)
- 파견근로	211	2.6	189	2.3	-22	(-10.4)
- 용역근로	585	7.2	567	6.9	-18	(-3.1)
- 특수형태근로	560	6.9	561	6.9	1	(0.2)
- 일일근로	955	11.8	814	10.0	-141	(-14.7)
- 가정내근로	79	1.0	95	1.2	16	(20.1)
< 남자 비정규직 >	3,575	100.0	3,653	100.0	78	(2.2)
○ 비전형근로자	1,342	37.5	1,209	33.1	-134	(-9.9)
- 파견근로	109	3.0	88	2.4	-21	(-18.9)
- 용역근로	351	9.8	325	8.9	-26	(-7.5)
- 특수형태근로	207	5.8	206	5.6	-1	(-0.3)
- 일일근로	742	20.8	640	17.5	-102	(-13.7)
- 가정내근로	17	0.5	12	0.3	-5	(-29.2)
< 여자 비정규직 >	4,491	100.0	4,503	100.0	13	(0.3)
○ 비전형근로자	936	20.8	922	20.5	-14	(-1.4)
- 파견근로	102	2.3	101	2.2	-1	(-1.4)
- 용역근로	233	5.2	242	5.4	8	(3.6)
- 특수형태근로	354	7.9	355	7.9	2	(0.5)
- 일일근로	213	4.7	174	3.9	-39	(-18.1)
- 가정내근로	62	1.4	83	1.8	21	(33.4)

1) 비전형 근로자 전체 규모 및 구성비는 일부 중복되는 각 유형별 근로자를 제외한 순계로, 각 유형별 근로자 규모 및 비중의 합계와 불일치함

2. 비정규직 근로자 특성

가. 성별 특성

- 비정규직 근로자의 성별 비중은 여자가 55.2%로 남자(44.8%)보다 10.4%p 높았음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5%p 상승하였고, 여자는 0.5%p 하락하였음
- 남자는 365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8천명 증가하였고, 여자는 450만 3천명으로 1만 3천명 증가하였음

< 성별 비정규직 근로자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1. 8.					2022. 8.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구성비					구성비	증감		증감		증감		증감	
< 전체 >	8,066	100.0	5,171	3,512	2,278	8,156	100.0	90	5,348	177	3,687	175	2,131	-147
남자	3,575	44.3	2,234	1,011	1,342	3,653	44.8	78	2,368	134	1,125	115	1,209	-134
여자	4,491	55.7	2,938	2,502	936	4,503	55.2	13	2,980	43	2,562	61	922	-14

나. 연령계층별 특성

-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령계층별 구성비는 60세 이상(31.3%), 50대(21.1%), 20대(17.3%)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전년동월대비 60세 이상은 15만 1천명, 50대는 5만 8천명 각각 증가하였고, 40대는 9만 6천명, 30대는 3만 3천명 각각 감소하였음

<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근로자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1. 8.					2022. 8.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구성비					구성비	증감		증감		증감		증감	
< 전 체 >	8,066	100.0	5,171	3,512	2,278	8,156	100.0	90	5,348	177	3,687	175	2,131	-147
15~19세	148	1.8	68	130	13	159	1.9	11	63	-5	148	18	7	-6
20~29세	1,414	17.5	906	690	199	1,414	17.3	0	929	24	708	18	147	-52
30~39세	1,016	12.6	657	329	253	983	12.0	-33	666	9	312	-17	233	-20
40~49세	1,419	17.6	910	475	419	1,323	16.2	-96	863	-47	462	-13	355	-64
50~59세	1,667	20.7	928	568	651	1,725	21.1	58	1,006	77	622	53	624	-27
60세이상	2,403	29.8	1,703	1,320	743	2,553	31.3	151	1,822	119	1,436	116	766	22

다. 산업별 특성

-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38만 8천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87만 1천명, 건설업 84만 5천명 순으로 나타났음
- 전년동월대비 숙박및음식점업 7만 7천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3만 1천명, 제조업과 교육서비스업 각각 2만 9천명 증가하였으며, 건설업 4만 5천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1만 8천명 각각 감소하였음

< 산업별 비정규직 근로자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1. 8.					2022. 8.									
	비정규직				비전형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구성비	한시적	시간제	증감		구성비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 전 체 >	8,066	100.0	5,171	3,512	2,278	8,156	100.0	90	5,348	177	3,687	175	2,131	-147	
농림어업	80	1.0	26	21	48	62	0.8	-17	18	-8	26	5	38	-9	
제조업	631	7.8	493	122	81	660	8.1	29	525	32	142	20	74	-7	
건설업	890	11.0	269	138	596	845	10.4	-45	295	26	151	12	531	-65	
도매및소매업	753	9.3	379	400	152	748	9.2	-5	374	-5	427	27	149	-2	
운수및창고업	264	3.3	155	74	93	253	3.1	-11	145	-11	82	9	94	1	
숙박및음식점업	694	8.6	291	534	67	771	9.5	77	343	52	587	53	58	-10	
정보통신업	183	2.3	151	37	25	202	2.5	19	169	18	42	5	23	-2	
금융및보험업	303	3.8	84	35	233	322	4.0	19	94	10	46	11	241	8	
부동산업	208	2.6	159	54	57	220	2.7	12	172	12	63	9	48	-9	
전문과학기술 ¹⁾	206	2.6	164	65	13	191	2.3	-15	158	-6	51	-14	11	-1	
사업시설관리 ²⁾	890	11.0	629	177	664	871	10.7	-18	630	1	194	17	626	-38	
공공행정국방 ³⁾	392	4.9	378	260	1	376	4.6	-16	366	-12	239	-21	3	2	
교육서비스업	673	8.3	486	410	69	702	8.6	29	518	32	446	37	54	-15	
보건사회복지 ⁴⁾	1,356	16.8	1,178	890	57	1,388	17.0	31	1,220	43	906	16	56	-1	
예술스포츠여가 ⁵⁾	180	2.2	121	104	20	190	2.3	10	123	2	98	-6	26	6	
협회단체수리 ⁶⁾	241	3.0	138	125	75	248	3.0	7	142	4	130	5	70	-5	
기타 ⁷⁾	123	1.5	71	67	28	108	1.3	-15	56	-15	57	-9	29	2	

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3)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4)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5)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6)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7) 광업,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의 합계

라. 직업별 특성

-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는 단순노무종사자 271만 8천명, 전문가및관련 종사자 128만 1천명, 서비스종사자 122만 5천명 순으로 나타났음
- 전년동월대비 서비스종사자는 7만 3천명,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는 3만명 각각 증가하였고,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7만 7천명, 사무종사자 1만 3천명이 각각 감소하였음

< 직업별 비정규직 근로자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1. 8.					2022. 8.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한시적
	구성비	증감				구성비	증감							
< 전 체 >	8,066	100.0	5,171	3,512	2,278	8,156	100.0	90	5,348	177	3,687	175	2,131	-147
관리자	63	0.8	55	5	12	76	0.9	13	67	12	9	4	7	-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252	15.5	988	483	133	1,281	15.7	28	1,037	49	476	-6	114	-18
사무종사자	865	10.7	677	296	74	852	10.4	-13	674	-2	279	-17	62	-12
서비스종사자	1,152	14.3	678	770	152	1,225	15.0	73	735	57	833	63	152	0
판매종사자	817	10.1	296	397	354	846	10.4	28	317	21	424	27	358	4
농림어업숙련종사자	31	0.4	20	6	11	30	0.4	-1	18	-2	6	0	10	-1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742	9.2	333	121	414	665	8.2	-77	328	-5	113	-8	333	-81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436	5.4	320	71	119	465	5.7	30	338	18	81	10	138	18
단순노무종사자	2,709	33.6	1,805	1,365	1,009	2,718	33.3	8	1,835	30	1,468	103	957	-52

마. 교육정도별 특성

- 교육정도별 비정규직 규모는 고졸이 348만 2천명으로 가장 많았음
- 전년동월대비 대졸이상은 14만 1천명 증가하였고, 중졸이하는 5만명, 고졸은 1천명 각각 감소하였음

< 교육정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1. 8.					2022. 8.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한시적
	구성비	증감				구성비	증감							
< 전 체 >	8,066	100.0	5,171	3,512	2,278	8,156	100.0	90	5,348	177	3,687	175	2,131	-147
중졸이하	1,742	21.6	1,155	1,003	598	1,693	20.8	-50	1,154	-2	1,046	43	534	-64
고 졸	3,483	43.2	1,994	1,505	1,123	3,482	42.7	-1	2,059	65	1,564	60	1,044	-79
대졸이상	2,841	35.2	2,022	1,005	557	2,982	36.6	141	2,135	113	1,077	73	552	-4

3. 항목별 분석

가. 일자리 형태 선택 동기

- 지난 주 일자리 형태를 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62.8%로 전년동월대비 2.9%p 상승하였음
- 자발적 선택 비율은 한시적 근로자(66.8%)는 1.8%p, 시간제 근로자(55.6%)는 2.0%p, 비전형 근로자(49.2%)는 3.0%p 각각 상승하였음
- 자발적 사유로 정규직 근로자는 '안정적인 일자리(50.1%)',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만족(59.7%)'이 가장 높았음
- 비자발적 사유로는 '당장 수입이 필요'가 정규직 근로자는 74.9%, 비정규직 근로자는 7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지난 주 일자리 형태 선택 동기 >

(단위: %)

	2021. 8.					2022. 8.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 자 발 적 사 유	88.3	59.9	65.0	53.6	46.2	90.3	62.8	66.8	55.6	49.2
· 근로조건에 만족	(44.5)	(58.1)	(59.7)	(61.2)	(53.2)	(44.9)	(59.7)	(60.8)	(62.9)	(55.7)
· 안정적인 일자리	(50.5)	(22.6)	(26.0)	(11.5)	(19.7)	(50.1)	(21.3)	(25.6)	(9.7)	(18.3)
· 직장이동 등 ¹⁾	(3.3)	(11.9)	(10.3)	(19.3)	(9.1)	(3.4)	(11.9)	(9.8)	(19.3)	(7.6)
· 노력한 만큼 수입 등 ²⁾	(1.6)	(7.4)	(4.0)	(7.9)	(18.1)	(1.6)	(7.1)	(3.9)	(8.0)	(18.4)
- 비 자 발 적 사 유	11.7	40.1	35.0	46.4	53.8	9.7	37.2	33.2	44.4	50.8
· 당장 수입이 필요	(74.5)	(75.9)	(75.6)	(70.7)	(82.6)	(74.9)	(74.5)	(74.0)	(71.5)	(81.2)
· 원하는 일자리 없음 등 ³⁾	(17.1)	(14.8)	(16.0)	(17.1)	(10.0)	(17.4)	(15.0)	(16.4)	(15.5)	(11.3)
· 직장이동 등 ¹⁾	(6.5)	(6.2)	(5.9)	(8.8)	(3.4)	(5.6)	(7.0)	(6.4)	(9.4)	(3.2)
· 노력한 만큼 수입 등 ²⁾	(1.9)	(3.1)	(2.4)	(3.3)	(4.0)	(2.2)	(3.5)	(3.1)	(3.6)	(4.3)

주) ()는 자발적 사유 또는 비자발적 사유 각각에 대한 구성비임

- 1)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육아·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학업·학원수강·직업 훈련·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 2)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기타
- 3)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나. 평균 근속기간

-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 6개월로 전년 동월대비 1개월 증가하였음
- 한시적 근로자(2년 6개월)는 1개월, 시간제 근로자(1년 11개월)는 2개월, 비전형 근로자(2년 9개월)는 3개월 각각 증가하였음
- 근속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은 54.8%로 0.7%p, 1~3년 미만은 21.4%로 0.2%p 각각 하락하였고, 3년 이상은 23.7%로 0.9%p 상승하였음

< 근로형태별 평균 근속기간 및 근속기간별 구성비 >

(단위: %)

	2021. 8.				2022. 8.			
	평균 근속기간	1년 미만	1~3년 미만	3년 이상	평균 근속기간	1년 미만	1~3년 미만	3년 이상
< 임금근로자 >	5년 10개월	32.2	20.7	47.1	6년 0개월	31.6	20.5	47.9
○ 정 규 직	8년 0개월	17.7	20.2	62.2	8년 1개월	17.7	19.9	62.4
○ 비정규직	2년 5개월	55.5	21.6	22.8	2년 6개월	54.8	21.4	23.7
- 한 시 적	2년 5개월	52.9	24.1	23.0	2년 6개월	53.3	23.4	23.2
· 기 간 제	2년 5개월	53.0	24.0	23.0	2년 6개월	53.4	22.9	23.7
· 비기간제	2년 3개월	52.5	24.8	22.7	2년 2개월	53.2	27.3	19.5
- 시 간 제	1년 9개월	64.9	19.0	16.1	1년 11개월	64.2	18.4	17.4
- 비 전 형	2년 6개월	60.7	15.4	24.0	2년 9개월	57.2	17.5	25.3

주) 근속기간별 구성비 합은 100.0임

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

- 정규직 근로자의 주당 평균취업시간은 37.8시간으로 0.9시간, 비정규직 근로자는 29.6시간으로 0.6시간 각각 감소하였음
- 비정규직 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는 0.6시간, 비전형근로자는 1시간 각각 감소한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0.3시간 증가하였음

< 주당 평균 취업시간¹⁾ >

(단위: 시간, 전년동월대비)

	임 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기간제	비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2021. 8.	35.4	38.7	30.2	31.4	31.0	33.8	18.4	34.6
2022. 8.	34.7	37.8	29.6	30.8	30.5	32.4	18.7	33.6
증감	-0.7	-0.9	-0.6	-0.6	-0.5	-1.4	0.3	-1.0

1) 취업시간은 조사대상주간에 공휴일이 주중 또는 주말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음

라.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

-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은 288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4만 6천원 증가하였음
 - 정규직 근로자는 348만원으로 14만 4천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188만 1천원으로 11만 2천원 각각 증가하였음
 -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하면 261만원으로 18만 3천원 증가하였음
- 비정규직 근로자 중 비전형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7만 4천원, 한시적 근로자는 199만원, 시간제 근로자는 99만 9천원으로 나타났음
 - 전년동기대비 한시적 근로자는 11만 9천원, 비전형 근로자는 10만 7천원, 시간제 근로자는 8만 3천원 각각 증가하였음

< 근로형태별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 >

(단위: 만원, %, 전년동기대비)

	임 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시간제제외			기간제	비기간제		
'21. 6~8월 평균	273.4	333.6	176.9	242.7		187.1	188.8	175.1	91.6
'22. 6~8월 평균	288.0	348.0	188.1	261.0		199.0	201.8	178.9	99.9
증감	14.6	14.4	11.2	18.3		11.9	13.0	3.8	8.3
(증감률)	(5.3)	(4.3)	(6.3)	(7.5)		(6.4)	(6.9)	(2.2)	(9.1)

마. 계약서 서면작성 비율

- 임금근로자의 계약서 서면작성 비율은 78.8%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하였음
 - 정규직 근로자(80.5%) 0.8%p, 비정규직 근로자(76.1%) 1.2%p 각각 상승하였음
 - 비정규직 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88.7%)는 0.9%p, 시간제 근로자(71.1%)는 0.2%p 각각 하락하였고, 비전형 근로자(58.4%) 4.8%p 상승하였음

< 계약서 서면작성 비율 >

(단위: %, %p)

	임 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기간제	비기간제			
2021. 8.	77.9	79.7	74.9	89.6	94.3	56.4	71.3	53.6
2022. 8.	78.8	80.5	76.1	88.7	92.4	62.3	71.1	58.4
증감	0.9	0.8	1.2	-0.9	-1.9	5.9	-0.2	4.8

바. 사회보험 가입률

- 임금근로자의 전년동월대비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70.0%) 0.6%p, 건강보험(78.5%) 1.5%p, 고용보험(77.0%) 1.8%p 각각 상승하였음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년동월대비 사회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51.7%) 1.4%p, 고용보험(54.0%) 1.4%p 각각 상승하였고, 국민연금(38.3%)은 0.1%p 하락하였음
 - 국민연금은 한시적 근로자(48.1%) 2.0%p, 시간제 근로자(19.9%) 1.1%p 각각 하락하였고 비전형 근로자(18.3%)는 0.6%p 상승하였음
 - 건강보험은 시간제 근로자(29.6%) 0.1%p, 비전형 근로자(33.1%) 2.0%p 각각 상승하였고, 한시적 근로자는 65.2%로 전년과 같았음
 - 고용보험은 비전형 근로자(49.5%) 5.7%p, 시간제 근로자(32.1%) 0.8%p 각각 상승하였고, 한시적 근로자(60.5%)는 1.5%p 하락하였음

< 사회보험 가입률 >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2021. 8.			2022. 8.					
	국민 연금 ¹⁾²⁾	건강 보험 ¹⁾	고용 보험 ³⁾	국민 연금 ¹⁾²⁾	증감	건강 보험 ¹⁾	증감	고용 보험 ³⁾	증감
< 임금근로자 >	69.4	77.0	75.2	70.0	0.6	78.5	1.5	77.0	1.8
○ 정 규 직	88.8	93.6	90.9	89.1	0.3	94.5	0.9	92.2	1.3
○ 비정규직	38.4	50.3	52.6	38.3	-0.1	51.7	1.4	54.0	1.4
- 한 시 적	50.1	65.2	62.0	48.1	-2.0	65.2	0.0	60.5	-1.5
· 기 간 제	53.0	69.1	64.4	50.9	-2.1	68.7	-0.4	62.1	-2.3
· 비기간제	28.9	37.7	44.5	28.1	-0.8	40.5	2.8	48.6	4.1
- 시 간 제	21.0	29.5	31.3	19.9	-1.1	29.6	0.1	32.1	0.8
- 비 전 형	17.7	31.1	43.8	18.3	0.6	33.1	2.0	49.5	5.7

1) 직장가입자만 집계한 수치임(지역가입자, 수급권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

2)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포함

3)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응답대상에서 제외

사. 근로복지 수혜율

- 임금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은 퇴직급여(74.9%) 0.9%p, 상여금(69.9%) 2.8%p, 시간외수당(53.0%) 2.4%p, 유급휴일(66.3%) 1.6%p 전년동월 대비 각각 상승하였음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은 퇴직급여(43.0%) 0.3%p, 상여금(38.5%) 2.8%p, 시간외수당(28.9%) 1.3%p, 유급휴일(35.9%) 0.8%p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하였음

< 근로복지 수혜율 >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2021. 8.				2022. 8.							
	퇴직 급여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일 (휴가) ¹⁾	퇴직 급여	증감	상여금	증감	시간외 수당	증감	유급휴일 (휴가) ¹⁾	증감
<임금근로자>	74.0	67.1	50.6	64.7	74.9	0.9	69.9	2.8	53.0	2.4	66.3	1.6
○ 정 규 직	93.5	86.7	64.9	83.3	94.0	0.5	88.8	2.1	67.5	2.6	84.5	1.2
○ 비정규직	42.7	35.7	27.6	35.1	43.0	0.3	38.5	2.8	28.9	1.3	35.9	0.8
- 한 시 적	54.6	43.1	34.0	46.9	53.9	-0.7	45.7	2.6	35.0	1.0	47.0	0.1
· 기 간 제	58.4	45.3	35.9	50.8	56.9	-1.5	47.7	2.4	36.4	0.5	51.1	0.3
· 비기간제	27.4	28.0	20.9	18.7	32.7	5.3	31.3	3.3	25.1	4.2	17.3	-1.4
- 시 간 제	23.8	20.9	14.9	15.9	23.4	-0.4	22.5	1.6	16.3	1.4	14.7	-1.2
- 비 전 형	27.5	23.1	17.2	20.5	28.2	0.7	25.5	2.4	16.5	-0.7	20.8	0.3

1)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산전후휴가) 중 한 개 이상 수혜 대상인 경우

아. 교육·훈련 경험 비율

- 임금근로자 중 지난 1년간 직업능력 향상 및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경험 있음 비율은 47.2%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하였음
- 정규직 근로자는 54.8%, 비정규직 근로자는 34.4%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0.7%p, 0.9%p 하락하였음
- 비정규직 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는 41.7%로 1.2%p, 시간제 근로자는 26.4%로 1.7%p, 비전형 근로자 26.4%로 0.3%p 각각 하락하였음

< 교육·훈련 경험 비율 >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임 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기간제	비기간제	기간제	비기간제	기간제		
2021. 8.	47.7	55.5	35.3	42.9	46.1	19.6	28.1	26.7		
2022. 8.	47.2	54.8	34.4	41.7	44.8	19.7	26.4	26.4		
증감	-0.5	-0.7	-0.9	-1.2	-1.3	0.1	-1.7	-0.3		

자. 노동조합 가입 비율

- 임금근로자의 20.7%는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2.5%는 노동조합이 없고, 6.8%는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음
 - 정규직 근로자의 29.3%, 비정규직 근로자의 6.4%가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였음
-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임금근로자중 59.8%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전년동월대비 2.6%p 하락하였음
 - 정규직 근로자 가입가능자의 60.9%가, 비정규직 근로자 가입가능자의 51.9%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 노동조합 (가입가능자중) 가입 비율 >

(단위: %)

	2021. 8.					2022. 8.				
	가입가능자 ¹⁾			가입 대상 아님 ³⁾	노동 조합 없음	가입가능자 ¹⁾			가입 대상 아님 ³⁾	노동 조합 없음
		가입	미 가입 ²⁾				가입	미 가입 ²⁾		
< 임금근로자 >	20.2 (100.0)	12.6 (62.4)	7.6 (37.6)	7.3	72.5	20.7 (100.0)	12.4 (59.8)	8.3 (40.2)	6.8	72.5
○ 정 규 직	28.9 (100.0)	18.4 (63.6)	10.5 (36.4)	6.2	64.9	29.3 (100.0)	17.8 (60.9)	11.5 (39.1)	5.6	65.1
○ 비정규직	6.2 (100.0)	3.3 (53.5)	2.9 (46.5)	9.2	84.6	6.4 (100.0)	3.3 (51.9)	3.1 (48.1)	8.8	84.8
- 한 시 적	7.8 (100.0)	4.2 (53.8)	3.6 (46.2)	12.3	79.9	7.7 (100.0)	4.0 (52.3)	3.7 (47.7)	11.7	80.6
· 기 간 제	8.1 (100.0)	4.4 (53.6)	3.8 (46.4)	13.2	78.7	7.9 (100.0)	4.1 (51.4)	3.9 (48.6)	12.8	79.3
· 비기간제	5.5 (100.0)	3.0 (55.2)	2.5 (44.8)	5.8	88.7	6.3 (100.0)	3.8 (60.6)	2.5 (39.4)	4.0	89.7
- 시 간 제	2.8 (100.0)	1.3 (45.5)	1.5 (54.5)	7.9	89.3	2.5 (100.0)	1.2 (49.3)	1.3 (50.7)	7.2	90.3
- 비 전 형	3.3 (100.0)	2.1 (64.5)	1.2 (35.5)	5.0	91.7	5.0 (100.0)	2.5 (49.5)	2.5 (50.5)	4.3	90.8

1)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은 경우

2)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음

3)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아님

차. 적용임금 형태

- 임금근로자의 적용임금 형태는 월급제가 58.3%로 가장 높았으며, 연봉제(20.1%), 시급제(11.3%) 순이었음
- 정규직 근로자는 월급제(66.7%)와 연봉제(28.0%)가 94.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급제(44.3%), 시급제(26.0%) 순이었음
- 시간제 근로자는 시급제가 50.6%로 월급제(31.8%) 보다 높았음

< 임금지불 적용형태¹⁾ >

(단위: %)

	2021. 8.						2022. 8.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급제	9.9	2.1	22.5	21.9	45.7	8.6	11.3	2.5	26.0	25.3	50.6	9.4
일급제	6.8	1.6	15.2	6.3	10.2	37.1	6.3	1.7	13.8	6.6	9.4	34.5
월급제	59.8	68.2	46.4	59.1	36.6	25.8	58.3	66.7	44.3	55.3	31.8	26.2
연봉제	18.8	26.6	6.4	9.1	1.0	1.9	20.1	28.0	6.8	9.7	1.1	1.4
실적급제	4.1	1.2	8.8	3.2	5.5	26.1	3.7	0.9	8.3	2.5	6.1	27.9
기타	0.4	0.3	0.7	0.5	1.1	0.6	0.3	0.2	0.6	0.5	0.8	0.6

1) 적용임금 형태는 임금지급 주기가 아닌 임금을 산정하는 단위(시간, 일, 주, 월, 년 등)에 기초하여 파악

4. 임금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347만 5천명으로, 16.0%를 차지하며, 전년동월대비 0.8%p 하락하였음
- 성별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은 남자가 17.3%, 여자는 14.4%로 나타났고,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이 16.7%로 기혼(15.7%)보다 1.0%p 높았음
- 연령계층별로는 30대가 23.8%로 가장 높았고, 40대(19.0%), 15~29세(14.6%), 50대(14.2%) 순으로 나타났음

< 성별 및 혼인상태별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

(단위: 천명, %)

	2021. 8.			2022. 8.		
	임금근로자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	임금근로자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
<전 체>	20,992	3,534	16.8	21,724	3,475	16.0
남 자	11,517	2,092	18.2	11,936	2,069	17.3
여 자	9,476	1,441	15.2	9,788	1,406	14.4
미 혼	6,509	1,166	17.9	6,852	1,141	16.7
기 혼	14,484	2,368	16.3	14,872	2,334	15.7
15 ~ 29세	3,711	614	16.6	3,796	556	14.6
30 ~ 39세	4,417	1,041	23.6	4,488	1,070	23.8
40 ~ 49세	4,958	999	20.2	4,978	946	19.0
50 ~ 59세	4,649	698	15.0	4,883	694	14.2
60세 이상	3,259	181	5.6	3,580	210	5.9

- 유연근무제 활용 유형은 시차출퇴근제(31.7%), 탄력적 근무제(27.9%), 재택 및 원격 근무제(27.5%), 선택적 근무시간제(24.8%) 순이었음

< 유연근무제 활용 유형(중복응답) >

(단위: 천명, %)

	2021. 8.		2022. 8.	
	유연근무제 활용	구성비	유연근무제 활용	구성비
<전체>	3,534	100.0	3,475	100.0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358	10.1	383	11.0
시차출퇴근제	1,055	29.9	1,100	31.7
선택적 근무시간제	817	23.1	861	24.8
재택 및 원격 근무제	1,140	32.3	956	27.5
탄력적 근무제	969	27.4	971	27.9
기타유형	306	8.7	316	9.1

-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임금근로자 중에서 향후 유연근무제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45.2%로 나타났고, 활용 희망 유형은 선택적 근무시간제(33.6%), 탄력적 근무제(31.6%), 근로시간 단축근무제(23.3%) 순이었음

< 향후 유연근무제 활용 희망 여부 및 유형(중복응답) >

(단위: 천명, %)

	2021. 8.		2022. 8.	
	미활용 임금근로자	구성비	미활용 임금근로자	구성비
<전체>	17,459	100.0	18,249	100.0
• 유연근무제 활용 희망	7,481	42.8	8,254	45.2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1,788	(23.9)	1,920	(23.3)
시차출퇴근제	1,597	(21.3)	1,711	(20.7)
선택적 근무시간제	2,553	(34.1)	2,773	(33.6)
재택 및 원격 근무제	1,188	(15.9)	1,378	(16.7)
탄력적 근무제	2,377	(31.8)	2,609	(31.6)
기타유형	658	(8.8)	706	(8.5)
• 유연근무제 활용 비희망	9,978	57.2	9,995	54.8

주) ()는 유연근무제 활용 희망에 대한 구성비임

<참고1> OECD Temporary Workers

- 비정규직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국가간 비교를 위해 통상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한 「Temporary Workers」를 파악·수록하고 있음

* 통계청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 단기기대 근로자 + 파견 근로자 + 일일 근로자」 자료 (매년 8월 기준) 기준으로 OECD에 제공

※ 비정규직 근로자 중 반복갱신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가정내 근로자는 제외

< Temporary Workers >

	<u>2018. 8.</u>	<u>2019. 8.</u>	<u>2020. 8.</u>	<u>2021. 8.</u>	<u>2022. 8.</u>
○ 임금근로자(천명)	20,045	20,559	20,446	20,992	21,724
- Temporary Workers(천명)	4,242	5,009	5,327	5,941	5,926
임금근로자대비(%)	(21.2)	(24.4)	(26.1)	(28.3)	(27.3)

< 주요국 Temporary Workers 비중 >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캐나다	13.4	13.4	13.3	13.8	13.4	12.9	11.6	12.1
독 일	13.0	13.1	13.2	12.9	12.6	12.0	10.9	11.4
네덜란드	21.5	20.2	20.8	21.8	21.5	20.3	18.0	27.4
폴란드	28.4	28.0	27.5	26.2	24.4	21.8	18.6	15.1
스페인	24.0	25.1	26.1	26.7	26.8	26.3	24.1	25.1
일 본	-	-	-	-	15.7	15.7	15.4	15.0
영 국	6.4	6.2	6.1	5.9	5.6	5.2	5.4	5.6
한 국	21.6	22.2	21.9	20.6	21.2	24.4*	26.1	28.3

* 출처: OECD. Due to the impact of the pilot survey in 2019, data reflects the increase in Fixed-term Workers who were partially identified in 2018 and before. Therefore, the year-on-year comparison shall not be made for the purpose of discerning an increase or a decrease.

<참고2> 유형간 중복을 제거한 비정규직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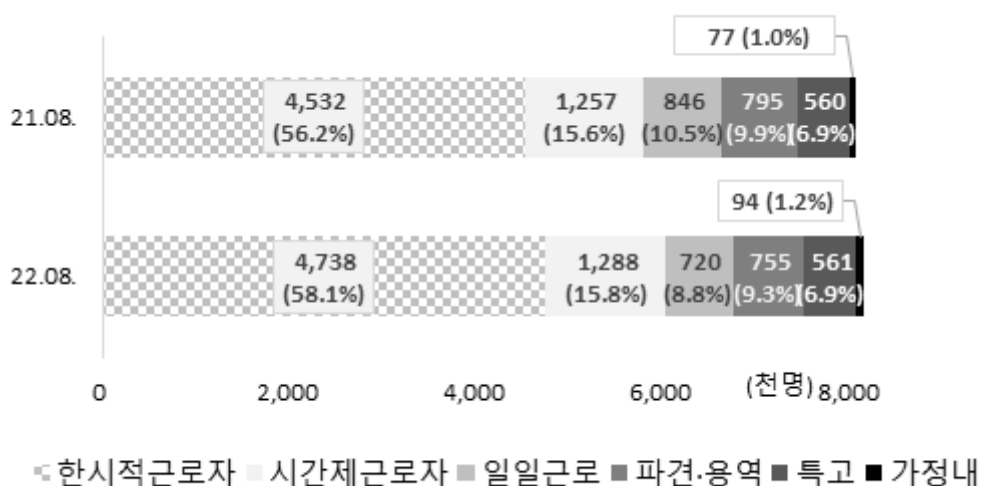
- 비정규직 유형이 중복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중복을 제거해 집계하면 한시적근로자(58.1%), 시간제근로자(15.8%), 파견·용역(9.3%), 일일근로(8.8%), 특수형태근로(6.9%), 가정내근로(1.2%)순으로 나타남

* 비정규성이 강한 순서 : ①특수형태근로, ②가정내근로, ③파견·용역, ④일일근로, ⑤한시적근로자, ⑥시간제근로자

< 중복제거 비정규직 근로자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1. 8.		2022. 8.		증감 (률)
		구성비		구성비	
< 비정규직근로자 >	8,066	100.0	8,156	100.0	90 (1.1)
- 특수형태근로	560	6.9	561	6.9	1 (0.2)
- 가정내근로	77	1.0	94	1.2	17 (22.4)
- 파견·용역	795	9.9	755	9.3	-40 (-5.0)
- 일일근로	846	10.5	720	8.8	-125 (-14.8)
- 한시적근로자	4,532	56.2	4,738	58.1	206 (4.5)
- 시간제근로자	1,257	15.6	1,288	15.8	31 (2.5)



<참고3> 종사상지위별 정규직·비정규직 규모

- 상용 정규직 근로자는 1,265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6만 1천명 증가하였으며, 임시·일용 정규직 근로자는 91만 5천명으로 11만 9천명 감소하였음

(단위: 천명, %)

	2021. 8.				2022. 8.					
	상용		임시·일용		상용			임시·일용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		구성비	증감
임금근로자	14,893	70.9	6,099	29.1	15,801	72.7	907	5,923	27.3	-176
정규직	11,892	56.7	1,034	4.9	12,653	58.2	761	915	4.2	-119
비정규직	3,001	14.3	5,065	24.1	3,148	14.5	147	5,008	23.1	-57

※ 구성비는 임금근로자 전체를 100.0으로 하였을 때의 비율임

통 계 표

1.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8월 기준)	25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령계층, 산업, 직업별 규모(8월 기준) ...	26
3.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별 특성(8월 기준)	27
4. 시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8월 기준)	28

1.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8월 기준)

<전체>

(단위: 천명,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 임금근로자	19,474	19,743	20,006	20,045	20,559	20,446	20,992	21,724
정규직	13,166	13,262	13,428	13,431	13,078	13,020	12,927	13,568
비정규직	6,308 (32.4)	6,481 (32.8)	6,578 (32.9)	6,614 (33.0)	7,481 (36.4)	7,426 (36.3)	8,066 (38.4)	8,156 (37.5)
한시적	3,655	3,671	3,725	3,823	4,785	4,608	5,171	5,348
시간제	2,236	2,488	2,663	2,709	3,156	3,252	3,512	3,687
비전형	2,229	2,245	2,112	2,071	2,045	2,073	2,278	2,131

<남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 임금근로자	11,007	11,086	11,188	11,171	11,396	11,361	11,517	11,936
정규직	8,103	8,166	8,242	8,236	8,040	8,027	7,941	8,283
비정규직	2,903 (26.4)	2,919 (26.3)	2,946 (26.3)	2,936 (26.3)	3,356 (29.4)	3,335 (29.4)	3,575 (31.0)	3,653 (30.6)
한시적	1,760	1,713	1,729	1,748	2,238	2,079	2,234	2,368
시간제	684	707	761	737	846	915	1,011	1,125
비전형	1,150	1,185	1,157	1,148	1,125	1,212	1,342	1,209

<여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 임금근로자	8,468	8,658	8,818	8,874	9,163	9,085	9,476	9,788
정규직	5,063	5,096	5,186	5,195	5,038	4,994	4,985	5,285
비정규직	3,405 (40.2)	3,562 (41.1)	3,632 (41.2)	3,678 (41.5)	4,125 (45.0)	4,091 (45.0)	4,491 (47.4)	4,503 (46.0)
한시적	1,895	1,958	1,996	2,075	2,547	2,529	2,938	2,980
시간제	1,553	1,780	1,902	1,971	2,310	2,337	2,502	2,562
비전형	1,079	1,060	954	923	920	861	936	922

1. ()안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임
2.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의 규모는 유형간 중복인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합계가 불일치함
3. 추가 포착된 기간제 영향으로 비정규직 규모는 2018년 이전과 2019년 이후로 구분하여 증감 비교 가능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령계층, 산업, 직업별 규모(8월 기준)

<연령계층별>

(단위: 천명,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 비정규직		6,308	6,481	6,578	6,614	7,481	7,426	8,066	8,156
비중	15 - 19세	3.0	3.0	2.7	2.3	2.0	1.9	1.8	1.9
	20 - 29세	17.4	17.2	17.6	17.0	18.2	17.3	17.5	17.3
	30 - 39세	16.3	15.4	14.9	15.0	14.8	13.8	12.6	12.0
	40 - 49세	20.9	20.3	20.0	19.0	18.0	17.6	17.6	16.2
	50 - 59세	21.6	21.6	21.7	21.8	21.0	20.8	20.7	21.1
	60세이상	20.7	22.5	23.2	24.9	25.9	28.7	29.8	31.3

<산업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 비정규직		6,308	6,481	6,578	6,614	7,481	7,426	8,066	8,156
비중	농림어업	1.4	1.2	1.3	1.1	1.0	1.0	1.0	0.8
	광·제조업	9.0	8.7	8.0	7.5	9.0	8.1	7.9	8.1
	(제조업)	8.9	8.6	8.0	7.5	8.9	8.1	7.8	8.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89.6	90.1	90.8	91.4	90.0	90.9	91.1	91.1
	(건설업)	11.7	11.9	12.0	12.3	11.4	11.6	11.0	10.4
	(도소매·음식숙박업)	19.6	19.8	20.1	19.5	19.7	19.1	17.9	18.6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기타)	48.9	48.8	49.6	50.4	50.5	51.8	52.8	52.5
	(전가운수통산금융)	9.4	9.6	9.1	9.1	8.5	8.4	9.4	9.6

<직업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 비정규직		6,308	6,481	6,578	6,614	7,481	7,426	8,066	8,156
비중	관리자·전문가	17.0	16.5	16.5	16.3	16.2	15.2	16.3	16.6
	사무 종사자	10.3	10.5	10.8	11.0	11.4	10.6	10.7	10.4
	서비스판매 종사자	24.4	25.0	26.2	25.9	26.0	25.4	24.4	25.4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0.4	0.3	0.3	0.4	0.5	0.5	0.4	0.4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16.9	16.6	15.3	14.9	15.1	14.8	14.6	13.9
	단순노무 종사자	31.0	31.0	30.9	31.5	30.8	33.5	33.6	33.3

1. 산업분류: 10차, 직업분류: 7차

2. 추가 포착된 기간제 영향으로 비정규직 규모는 2018년 이전과 2019년 이후로 구분하여 증감 비교 가능

3.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별 특성(8월 기준)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근속기간 (개월)	임금근로자	68	70	71	73	71	72	70	72
	정규직	88	89	91	93	94	97	96	97
	비정규직	28	29	30	31	29	29	29	30
평균 취업시간 (시간)	임금근로자	39.1	38.1	38.1	36.6	35.9	37.1	35.4	34.7
	정규직	41.3	40.5	40.7	39.3	38.8	40.7	38.7	37.8
	비정규직	34.3	33.2	32.7	31.2	30.8	30.7	30.2	29.6
월평균임금 (만원)	임금근로자	230.4	237.2	243.0	255.8	264.3	268.1	273.4	288.0
	정규직	270.2	279.9	285.1	300.9	316.5	323.4	333.6	348.0
	비정규직	147.3	149.8	156.9	164.4	172.9	171.1	176.9	188.1
국민연금 가입률 (%)	임금근로자	67.5	67.7	69.1	69.8	69.5	69.8	69.4	70.0
	정규직	82.1	83.0	85.0	86.2	87.5	88.0	88.8	89.1
	비정규직	37.0	36.4	36.6	36.6	37.9	37.8	38.4	38.3
건강보험 가입률 (%)	임금근로자	71.6	72.6	74.2	75.5	75.7	76.7	77.0	78.5
	정규직	84.8	86.2	88.4	90.1	91.5	92.6	93.6	94.5
	비정규직	43.9	44.9	45.3	45.9	48.0	49.0	50.3	51.7
고용보험 가입률 (%)	임금근로자	68.7	69.7	71.2	71.6	70.9	72.6	75.2	77.0
	정규직	82.4	84.2	85.9	87.0	87.2	89.2	90.9	92.2
	비정규직	42.6	42.9	44.1	43.6	44.9	46.1	52.6	54.0
퇴직급여 수혜율 (%)	임금근로자	69.9	70.9	72.6	73.9	74.0	73.2	74.0	74.9
	정규직	84.0	85.5	87.8	89.9	91.7	91.9	93.5	94.0
	비정규직	40.6	41.0	41.5	41.5	42.9	40.4	42.7	43.0
상여금 수혜율 (%)	임금근로자	70.1	70.0	70.7	70.4	68.8	68.8	67.1	69.9
	정규직	85.0	85.5	86.2	86.4	86.4	86.6	86.7	88.8
	비정규직	39.0	38.2	39.1	37.8	38.2	37.6	35.7	38.5
시간외수당 수혜율 (%)	임금근로자	47.2	47.3	47.8	48.1	48.2	50.0	50.6	53.0
	정규직	58.4	58.5	59.3	59.7	60.9	62.8	64.9	67.5
	비정규직	23.8	24.4	24.2	24.6	25.9	27.5	27.6	28.9
유급휴가 수혜율 (%)	임금근로자	60.3	60.2	61.2	62.8	62.9	64.6	64.7	66.3
	정규직	73.9	74.3	75.7	77.9	80.1	82.1	83.3	84.5
	비정규직	31.9	31.4	31.7	32.1	33.0	34.1	35.1	35.9

1.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의 경우, 가입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가구내 거주하는 모든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대상을 기준으로 한 가입률보다 낮음.
2. 퇴직급여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의 수혜자 기준임
3. 취업시간은 조사대상주간에 공휴일이 주중 또는 주말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음

4. 시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8월 기준)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2021			2022			증 감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 국	20,992	12,927	8,066	21,724	13,568	8,156	732	641	90
서울	4,161	2,558	1,603	4,210	2,651	1,559	48	93	-44
부산	1,247	735	512	1,295	749	546	48	14	34
대구	941	580	360	978	605	373	37	25	12
인천	1,292	813	479	1,319	808	511	27	-5	32
광주	576	346	231	586	365	221	10	19	-10
대전	638	378	260	646	395	252	8	17	-9
울산	454	296	158	484	315	169	30	19	11
세종	155	114	41	166	114	52	11	0	11
경기	5,835	3,670	2,165	6,269	4,072	2,197	434	402	32
강원	580	305	275	592	315	277	12	10	2
충북	664	407	257	665	398	266	1	-9	10
충남	837	538	299	853	540	312	16	2	14
전북	636	352	284	637	356	280	1	5	-4
전남	606	356	250	608	359	249	2	4	-1
경북	891	577	313	944	589	354	53	12	41
경남	1,232	756	476	1,205	784	421	-27	28	-55
제주	249	147	102	269	153	116	20	7	14

부 록

- 1.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개요**
- 2. 한국표준 산업·직업분류**
- 3. 노사정위원회 합의문 중 관련 내용[2002. 7. 22.]**

부록1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개요

□ 실시 배경

- 임금 근로자에 대한 세부분석 및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파견, 용역, 특수형태, 일일, 가정 내)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실태 및 규모를 파악하여 노동 관련 정책 및 연구에 활용

□ 추진 경과

- 2003~2006 : 매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실시
- 2007~2016 : 매년 3월,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실시
- 2017~ : 매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실시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표본조사구 약 35,000가구내에 상주하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 조사항목 : 근로형태 관련 26개 항목

- | | |
|----------------------------|---------------------|
| - 계약반복·갱신여부 | - 단기근로여부 |
| - 계속근로 가능여부 및 계속근로 가능 사유 | - 향후기대 근속기간 |
| - 근속기간 제한이유 | - 취업형태 |
| - 임금 지급업체 | - 실제 근무 사업체(장) |
| - 특수형태근로 종사여부 | - 주로 일한 장소 |
| - 지난 주 일자리 취업동기 및 주된 취업 사유 | - 사회보험 가입 여부 |
| - 퇴직급여* 등 수혜여부 | - 노동조합 가입여부 |
| - 교육·훈련 | - 임금 형태 |
| - 계약서 서면작성여부 | - 3개월간 평균 임금 |
| -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 - 향후 유연근무제 활용계획 여부* |

* 2015년부터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수혜여부, 유연근무제 활용 및 향후 활용계획 여부 조사

□ 용어설명

- 월평균임금 최근 3개월(6~8월) 동안 주된 일에서 받은 각종 상여금 및 현물을 포함한 총 수령액(세금공제전)의 평균임금
- 비정규직 근로자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한시적 근로자 ②시간제 근로자 ③비전형 근로자 등으로 분류된다.
- 한시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를 포함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가 해당됨
 - 비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일의 완료, 이전 근무자 복귀, 계절근무 등)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 파견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 용역 근로자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 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 가정 내 근로자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
 - 일일(단기) 근로자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부록2 한국표준 산업·직업 분류

□ 한국표준 산업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 농업 02 임업 03 어업 B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6 금속 광업 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C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36 수도업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39 환경정화 및 복원업 F 건설업 41 종합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G 도매 및 소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H 운수 및 창고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0 수상운송업 51 항공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J 정보통신업 58 출판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1 우편 및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85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6 보건업 87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97 가구내 고용활동 98 달리 구분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	---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2017년) 기준임

□ 한국표준 직업분류

1 관리자

- 11 공공 기관 및 기업 고위직
- 12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 13 전문 서비스 관리직
- 14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직
-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 ° 예) 국회의원, 기획관리자, 대학총장, 부서 관리자, 회원단체관리자 등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 22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 27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 ° 예) 생명과학연구원, 시스템개발자, 건축가, 의사, 교수, 변호사, 관세사, 작가 등

3 사무 종사자

-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 32 금융 사무직
-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 39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 ° 예) 행정사무원, 보험심사원, 특허사무원, 모니터요원 등

4 서비스 종사자

-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 42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 ° 예) 경호원, 간병인, 여행안내원, 조리사 등

5 판매 종사자

- 51 영업직
- 52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 53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 ° 예) 보험설계사, 매장계산원, 텔레마케터 등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61 농·축산 숙련직
- 62 임업 숙련직
- 63 어업 숙련직
- ° 예) 병아리감별사, 벌목원, 해녀 등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71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 72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 73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 74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 7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 77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 78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 79 기타 기능 관련직
- ° 예) 제빵원, 재단사, 악기수리원, 용접원, 자동차 정비원, 전기공, 도배공, 인터넷수리원, 방역원 등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81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 83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 85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 조작직
-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 ° 예) 도정기조작원, 직조기조작원, 사출기조작원, 판금기 조작원, 자동조립라인조작원, 발전터빈조작원, 자동차운전원, 소각로조작원, 인쇄기조작원 등

9 단순노무 종사자

-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 ° 예) 건설단순노무자, 배달원, 포장원, 경비원, 가사도우미, 검침원 등

※ 한국표준직업분류 제7차 개정(2018년) 기준임

비정규 근로자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제1차)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경제 환경, 외환위기로 초래된 경제위기의 극복 과정, 산업구조의 다변화·고도화 경향 속에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다각도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1년 7월 23일 발족한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는 비정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기하기 위한 법·제도개선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한 다음의 사항들에 합의한다.

- 다 음 -

1. 비정규 근로자 범위와 통계개선

- 비정규 근로자는 각각의 개별적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고용계약기간, 근로제공의 방식,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등 국제적 기준과 아울러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기준에 의거 파악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의 비정규 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위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우리 특위는 이를 '취약근로자'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호방안도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의 규모 및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구조사에 더해서 사업체조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한다.
- 향후 조사문항 및 조사방법은 별첨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노·사·정 및 전문가의 참여하에 면밀히 검토하여 마련한다.

1. 근로감독강화 (중략)

1.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및 복지확충 (중략)

2002년 7월 22일

노 사 정 위 원 회

*** 별첨: 비정규 근로자 관련 통계 개선방안**

1.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한시적 근로자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회사가 아주 어려워져 폐업 또는 고용조정을 하거나, 귀하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를 ‘회사가 (중략)...다면 귀하는 “원하는 한”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로 보완한다.
 - 그리고, 이 문항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사람에 대해 임시적·한시적 근로자 여부를 재확인하도록 한다.
- 호출근로를 파악하는 문항 중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
-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의 실태 파악을 위해 사업체 규모를 조사한다.

2. 사업체 조사

- 비정규 근로자의 다양한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설계한다.